찬밥 신세 벗어나기

(여호수아 8:1~29)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2.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찬밥신세 벗어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찬밥신세 벗어나기'
중국 당국의 반부정, 반부패 정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급 포도주를 찾는 일이 식었다고 하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프랑스 와인이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서 2~3년 째 먼지가 뽀얀 채 찬밥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 명동에 가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므로 상점의 주인들이 우리나라 자국민들을 찬밥 취급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쓰는 돈과 자국민이 쓰는 돈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안에서 아이가 둘만 생겨도 아빠는 엄마에게서 찬밥신세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찬밥신세라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밥 먹듯이 자주하게 되는 질문이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말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밥 먹듯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삶의 현장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이 무엇을 찾거나 유지하는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어떻게'를 그야말로 어떻게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앞서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의 누적으로부터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찬밥신세를 자처하고 사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빈번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 '어떻게'는 갓 지은 밥과 같이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어떻게'를 얻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

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 비슷한 유형에 속한다고 하여도 그 같은 유형 안에서 눈곱만한 차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도 절대 비슷하지 않고 같은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가 '식은 어떻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스티브잡스의 성공신화를 읽으며 나의 '어떻게'를 찾으려고 합니다. 스티브잡스의 성공방식은 스티브잡스의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어떻게'입니다. 이미 스티브잡스를 떠나버리면 식은 밥이 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따끈따끈 했지만 그 사람을 떠나 버리면 이미 '식은 어떻게'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 '식은 어떻게'를 찾으려고 하니 스스로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빌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떻게'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빌게이츠에게만 따끈따끈했던 식어버린 밥입니다. 요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찬밥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중국 알리바바의 대표인 마윈입니다. 벌써 "12가지 인생 강의"라는 책이 나왔고 이 시대의 모토처럼 생각하는 "마윈처럼 생각하라"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시대의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식은 밥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대표가 몇 조를 벌고 몇 백조 아니 몇 경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마윈의 것입니다.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참 먹히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 제발 목회 부흥 세미나에 가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사람이 좀 많아지면 그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불신앙의 극치로, 스스로 찬밥신세를 자처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주체사상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세상에서 볼 때에는 주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종이 될수록 자기의 주체성이 죽으면 죽을수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처럼 주체적일 수 없을 만큼 주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면 그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이식하느라고 온 교인에게 찬밥을 먹입니다. 스스로 당신도 찬밥신세로 만들고 교인도 찬밥신세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했던 제자훈련을 왜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합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게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내게는 주님이 안 계십니까? 답답한 일이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되는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다 찬밥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

다. 성공한 몇몇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미혹케 하는 바벨론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따끈따끈한 '어떻게'를 그에게서 찾으려고 스스로를 찬밥신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받고 타락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매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어떻게'를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어떻게'를 받아먹으면서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면서 마귀가 몇몇의 성공신화라는 바벨론을 만들었는데, 나머지 인간 전체들은 게걸스럽게 달려들어서 그 찬밥을 꾸역꾸역 먹고 사는 것입니다. '찬밥'은 하찮은 존재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다른 사람이 관심을 둘 필요도 없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민은 찬밥 신세로부터 벗어나도록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민들 중에서 스스로 선민의 세계 안에서 자기를 찬밥 신세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 교회의 목사님도 이해가 되질 않고, 부흥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에도 적용하면 잘 될 것이라고 믿어서 세미나를 하고 가르치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역사일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한 교회라면 자기에게 '어떻게'를 와서 배우려고 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절대 자기의 '어떻게'를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에게 뭔가를 서로 나누는 것은 좋은 것이기에 자기의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 나눠야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본문에서 아간의 일로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거주민이 남녀노소 합쳐서 만 이천 명 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 성을, 간단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3,000명을 차출해서 올라갔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온전히 진멸하고 봉헌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아간이 자기의 소유로 훔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뼛속까지 깊은 교훈을 새기게 됩니다. 어떤 적을 마주대하더라도 그 적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무엇은 하나님입니다.

여리고 성에 바싹 붙어서 일주일 내내 돌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여리고 성 옆에서 여리고 성을 보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에 붙어야 할 뿐 아니라 여리고 성에 붙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봐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지는 것인데 그것이 일주일 걸린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여리고 성의 위용에 압도될지라도 하루 이틀이 지나며 계속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은 양각 나팔소리를 들으며 법궤를 바라

보는데 법궤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법궤를 증거삼아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에 점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보내다가, 마지막 칠일 째에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 성보다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짙게 보이는 그 순간 함성을 지르면서,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의 뜻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여리고 기도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의 이 경험은 여리고 성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모든 전쟁에서 가져야 될 기본 마인드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 적에게 다가갑니다. 적에게 가까이 가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선민으로서 마음에 적을 담지 않고 하나님을 가지는데,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얻을 전리품에 대해서 침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지고 배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 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약속해주시며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탐내지 않고 침 흘리지 않는다면,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과 똑같이, 자기들 자신들에 대한 생각 속에서 전리품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내가 침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침을 흘리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많이 갖고 싶어 할 때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이 성 전투를 하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봐도 굉장하다고 여길 정도의 치밀한 군사작전이 적용됩니다.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도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데, 이제 아이 성 전투 때에는 여리고 성 때의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 성에 대한 ‘어떻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가 1~2절에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 네 손에 넘겨주셨으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복병을 배치하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 전투에 임할 때의 ‘어떻게’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세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아갈 당사자들에게 자세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전쟁터에 나갈 당사자들에게 성의 정문 반대편에 매복을 하게하고 주력 부대가 성 앞으로 진입해 들어가다가, 어제의 승리를 기억하고 심리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아이 성의 왕과 그 군대와 주민들이 어제와 같은 승리를 기대하면서 뛰어나올 때에,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척을 하며 유인을 해냅니다. 그들이 다 빠져나온 다음에 매복한 군사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을 불사르고 취할 것을 취합니다. 이때에 중간에 갇힌 상태가 되었을 때, 도망가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시 방향을 돌려서 쌍방으로 공격해서 아이 성의 모든 것들을 진멸을 시키는 것인데 대단한 군사작전입니다. 그러나 이 군사 작전은 일회성입니다. 여기 아이 성 전투에서 사용했던 이 작전을 여호수아의 난중일기에 기록

했다든지, 이스라엘의 전쟁 책에 기록해서 길이길이 전술을 보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진 자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음 전쟁 때의 '어떻게'에 대해서는 기록하거나 이번 전쟁을 기초로 해서 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선민이 하지 말아야 될 걱정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6:31~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서, 선민이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살까'를 보탤 수 있습니다.
마10:18~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문제, 모든 과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의 과제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갖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변하게 하시든지 간에, 그 결과물들에 침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지면 '어떻게'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서점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찬밥입니다. 자기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따듯한 밥이었고, 많은 경우 70~80%는 해보지도 않는 일들을 이론적으로 여기저기서 찬밥을 모아서 가져다 놓은 것인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우리가 거지입니까?
그저 깡통 들고 다니면서 찬밥 구걸하듯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떻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흥하는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인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직장을 구하고 어떻게 승진을 할 것인가? 어떻게 흑자 경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개발하고 어떻게 스펙을 쌓을 것인가?'라는 등의 피땀 어린 수고들이 공중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에 살아계시면서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의 메모 카드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카드가 몇 천 장이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 서적을 200권 이상은 읽어야 하므로,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고 카드를 수 천 장을 만듭니

다. 요즘 인터넷에는 온 세계의 백과사전이 다 들어있고, 그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어떤 사례를 낳는 것까지도 다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 때 묻은 카드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합니다. 메모 카드를 만드는 것이 이제는 식은 밥이 된 것이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피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증거삼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이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침 흘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지구를 이길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현장에서 드려질 때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해주셨고,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면서 그 '어떻게'가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 있고 하나님 계시고 약속이 있는데도 다른 부흥한 교회에 가서 목회의 '어떻게'를 배운다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셈인데, 신앙적 영적인 주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체성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게서 살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는 절대적으로 주체적인 인간으로 보입니다. 결코 옆의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번제를 하는 것은 여리고 성의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어떻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갖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지면 나에게만 적용되는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어떻게'가 금방 지은 쌀밥처럼 내 앞에 제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매순간 우리를 위한 따끈따끈한 갓 지은 밥이 있는데, 왜 이것을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었던 먹다 남은 찬밥을 찾아서 그렇게 분주하게 다닙니까? 이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못 돼먹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는 찬밥신세로부터 벗어나 더운 밥 먹기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계신 하나님 갖기에 삶의 현장에서 총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이 해결되고 극복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이 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겼다고 하시는데, 여호수아의 손이 아이 성에 접촉하겠지만 그 손을 장갑 삼아 끼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장갑이 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떻게'의 원리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장갑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져야 합니다. 장갑 안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갖

는 것입니다. 장갑이 끼워지고 나면 목공 일도 하실 것이고, 등산 할 때는 이렇게도 움직이실 것이고,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가실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절대로 찬밥 먹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어떻게'를 통해서 부흥하게 되고 일이 잘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갖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의 '어떻게'를 나의 '어떻게'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강도짓이고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흥한 교회 목사님이 부흥하지 못한 교회의 목사님들을 불러 놓고 '우리 교회처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떻게'를 도둑질하는 나쁜 짓입니다. 교계 전체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갖기에 매진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귀로 인해 주어진 찬밥 신세로부터 벗어나라고 따끈한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시는데, 아무도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몫의 밥을 찾아먹는 자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따끈한 밥을 먹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